

# SmartWhistle

##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4월호

### 1. 최근 동향 및 소식

- '청렴도 1등급' 강력한 열망 대한민국 철도 굳건히 세운다
- 한화시스템,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 포드, 8년연속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 변호사협회 "기업 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 제약협회 정책보고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진단 발표

###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신세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도를 위한 책임경영선언

### 3. 청렴 위반 사례

- 갑의 횡포 논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 4. 지식마당

- ISO 26000:2010 (사회적 책임 지침)

### 5. Quiz

###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 최근 동향 및 소식

### 1. '청렴도 1등급' 강력한 열망 대한 민국 철도 굳건히 세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SWOT분석을 통해 청렴 관련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강점은 경영진의 부패적 결의지, 기회는 정부의 강력한 부패적결의지와 건설 관련 이해관계자의 청렴의식 성숙, 약점은 연고중심의 문화, 위협은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경쟁의 심화로 분석되었다.

이에 철도공단은 세가지 다짐을 통해 청렴도 및 부패방지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첫번째 전략은 청렴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의 청렴희망노트 수시 작성 및 청렴경영메시지 전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청렴조형물' 설치 및 '반부패 윤리경영위원회'의 주기적 개최와 청렴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두번째는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것으로 철도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특별조사를 2개월간 실시하여 발견된 위법/부당사례에 대해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에 돌입하였다. 또한 설계변경절차 개선을 통한 심의부문 공정성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부패유발자 발견 시 영구 퇴출하는 등의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세번째로는 청렴KR이 선도하는 클린 문화조성이다. 철도공단은 '초지일관 C(클린)세대 양성을 통한 新 청렴문화 Boom-up!'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집중 청렴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1~4년 차 직원들의 연차 별 역할에 따른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청렴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49743>

### 2. 한화시스템,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한화시스템은 청렴성 및 준법정신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준법교육’을 24일 실시하였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장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에 제한적이었던 지방 파견지와 고객센터에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으며, 방위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정직한 기업문화 및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진행되었다.

해당 교육은 업종 특수성에 기반한 공정거래, 지식재산, 하도급, 부패방지, 영업비밀, 근무기강 등으로 인한 경영손실 및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임직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으며, 정정당한 기업문화를 위한 직원들의 준법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시스템 장시권 대표는 “최근 기업 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안보와 직결된 방산분야는 공정한 경영활동과 법규 준수가 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교육으로 임직원을 보호하고 준법 경영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투명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DCD=A00303&newsid=03237366615866600>

## 최근 동향 및 소식

### 3. 포드, 8년 연속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글로벌 기업윤리연구소인 에스티피어 인스티튜트가 주관하여 발표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포드가 8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영프로그램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직원인권에 대한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하청업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법률 및 포드 사내표준을 함께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에스티피어 인스티튜트는 포드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볼보자동차, 스타벅스, 리바이스, 메리어트 등 124개사를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했다.

<http://bizn.donga.com/car/Main/3/all/20170314/83319808/1>

### 4. 변호사협회 "기업 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준법지원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회사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하는 등 준법지원인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2012년 도입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회사 311개사 중 58.8%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고, 41.2%는 준법지원인을 두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 및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아직 선임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신속한 준법지원인 선임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변호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의원 과 4월 25일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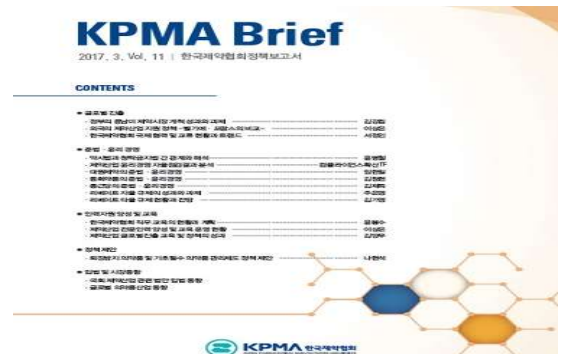
지원인 제도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329141701853969001\\_12](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329141701853969001_12)

### 5. 제약협회 정책보고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진단 발표

한국제약협회는 3월 13일 'KPMA Brief'를 통해 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조명하며, 전년도 회원사의 윤리경영,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 지원 정책보고서를 통해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조망했다.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의 관계'를 분석하여 위반행위도 각 법률 구분에 따라 별개의 것으로 판단할 것을 주장했고, 컴플라이언스 TF에서는 '윤리경영 자율점검 지표'를 활용, 회원사 18개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발표하여 인력과 적정에 산의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리경영의 확산을 위해 정기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준수 상향 평준화를 과제로 삼았으며, 회원들의 리베이트 자율규제, 청탁금지법 등의 규제를 다룬 내용을 소개하였다.

정책보고서는 회원사에 제약산업의 이슈사항 및 현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3월 13일부터 홈페이지 ([www.kpma.or.kr](http://www.kpma.or.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http://www.doctorw.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05>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신세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도를 위한 책임경영선언

#### 1. 클린신고

신세계 임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윤리강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금품/향응/접대를 받을 경우도 존재하므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신고로 내부공유와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클린신고 제도가 도입되었다.

클린신고의 취지는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모호한 경우 이를 오픈함으로써 투명하게 하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금품은 물론 향응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나 돌려주는 상황이 지나치게 예외에 벗어날 경우 클린뱅크에 기부하고, 회사는 이 기부금을 바자회를 통해 매각 후 전액을 복지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클린신고 등록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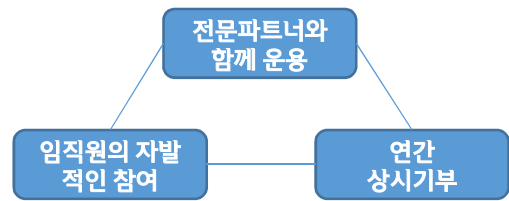
#### 2. 희망배달 캠페인

희망배달 캠페인은 신세계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캠페인으로, 임직원이 급여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는 해당 기부 금액만큼 기부하도록 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율적인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희망배달 캠페인

은 연평균 임직원의 85.2%라는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 희망배달 캠페인>



프로그램	내용
결연아동 후원 사업	생활비 및 명절 선물, 교복 지원
환아 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계층 어린이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희망장난감도서관 사업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희망스포츠클럽 사업	저소득계층 초등학생 방과 후 신체 활동 프로그램
희망근로장학금 사업	이마트 내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 및 추가 장학금 지원
희망자격증 사업	미용, 전산, 증장비 등의 자격증 취득 지원
희망아카데미 사업	조리사, 파티셰 등 직업 훈련 지원

#### 3. 신세계페이

신세계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하지만, 윤리경영 출범 6년이 지난 시점에도 한국적 비즈니스 관행과 윤리적 원칙 사이에서 상당수의 임직원들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임직원 개개인의 의식 변화뿐 아니라 조직의 변화도 필요하며, 나아가 업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세계 페이는 위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내외의 모임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 윤리경영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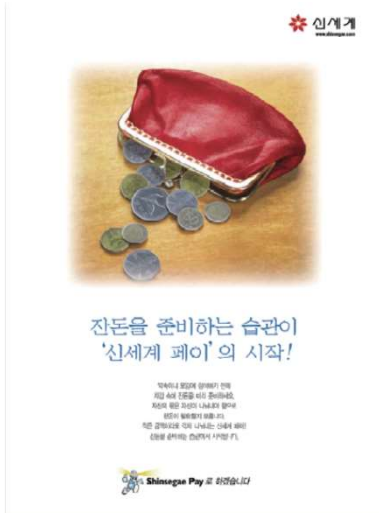
관행에서 벗어나, 본인의 몫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불함으로써 수평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러한 신세계 페이는 본인의 몫은 본인이 내자는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협력회사의 의식 개혁 및 동참으로부터 업계 전체로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이 캠페인은 거래관계 간의 접대는 갑을 관계에서 접대를 해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비윤리적 인식과 불합리한 관행을 지양하고, 신세계와 협력회사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기업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5대 실천지침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캠페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전 임직원들의 캠페인 실천 모니터링을 위해 사내인사시스템 내에 신세계페이 실천내용을 등록하고, 임직원들이 신세계페이 실천 후 실천내용을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를 독려했다. 해당 캠페인의 성과는 조직문화의 변화로 연결하였고, 협력회사로의 확대를 바탕으로 유통업계 전 방향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있다.

<신세계페이 캠페인 사내포스터>



### 4. 희망배달 마차

희망배달 캠페인 도입 이후, 사회 전반의 자율적인 기부 문화가 확산되었다. 기업 내부에서는 임직원의 봉사활동, 회사의 후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는 희망배달 마차가 탄생되었다.

신세계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희망배달 마차는 쪽방촌, 비닐하우스촌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희망배달 마차를 이동식 마트로 활용하여 직접 후원 지역을 방문해서 생필품 등 물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면서 지자체 및 시민들과 함께 보다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4월 처음 출범한 희망배달 마차는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까지 그 범위를 넓혔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3년 연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목표로 하는 신세계 희망배달 마차는 오늘도 지역사회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소외계층을 위해 달리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사례집, 2013

## 청렴 위반 사례

### 1 갑의 횡포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상품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준 국내의 한 화장품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한 가맹점이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사용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시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동일 상권 지역에 다른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여, 이 영향으로 해당 가맹점의 매출은 56%가량 하락하였다. 한편, 다른 국내업체의 경우 특약판매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켜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5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을 교육시킨 후에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빼앗기는 일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이 업체의 영업 전략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해당 특약점의 경우 불합리한 ‘갑의 횡포’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시사점 :

- ① 화장품 유통과정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체가 지배적인 주도권을 가짐
- ② 대리점 및 특약점과의 관계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가 우위에 있으며, 상품공급중단, 근거리 신규매장출점,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여러 비윤리적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 ③ 일부 사례일지라도 화장품 업체들은 단기적인 작은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위해 대리점 및 특약점과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함

###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모 공직유관단체 A차장은 평소 거래를 해오던 물품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동료공무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개해 주었다. 소개의 대가로 금전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시사점 :

- 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표준안」제 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따라 경우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임직원의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되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됨
- ② 해당 사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출품한 작품을 거론한 행위는 공정한 심사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직자 행동강령상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 ③ 해당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한다면 공직자 행동강령의 위반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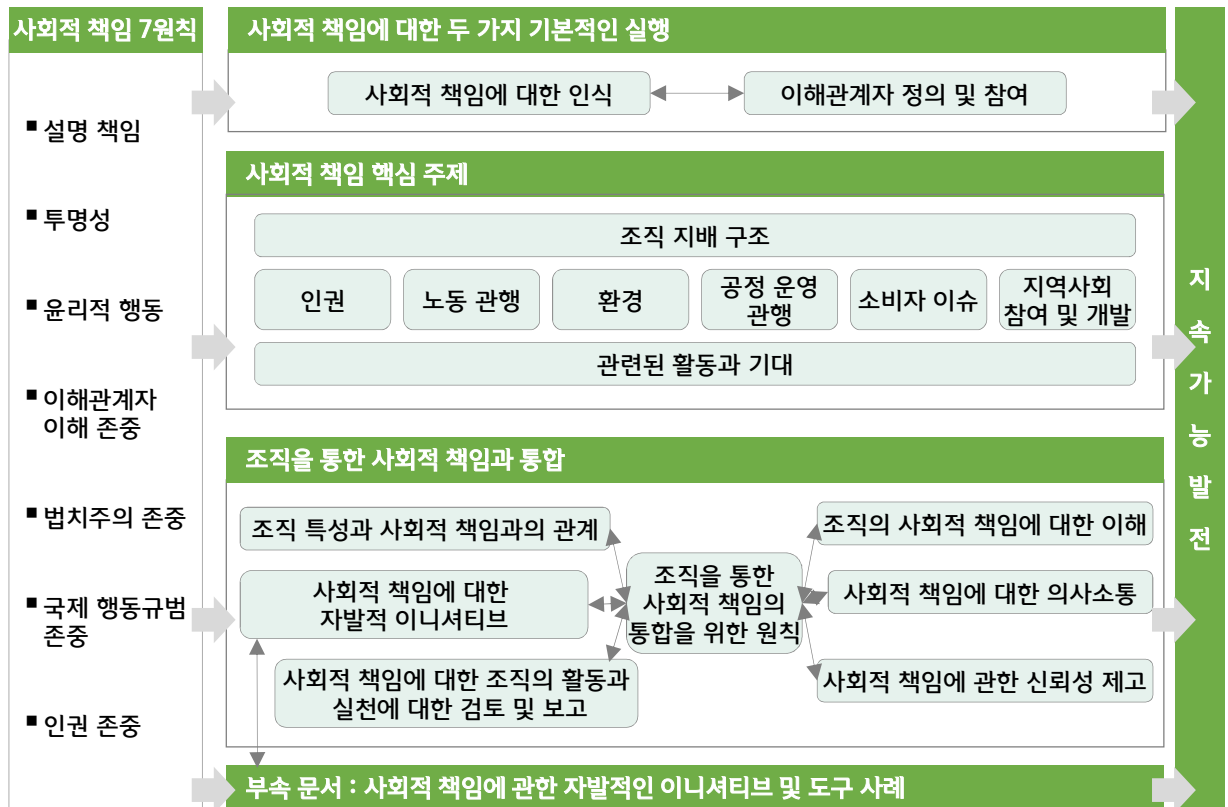
## 지식마당

### ISO 26000:2010 (사회적 책임 지침)

#### 1. ISO 26000 개요

ISO 26000은 세계화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과 개발에 따른 지구환경 위기 대처 및 지속가능한 생존과 인류 번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에 따라, 2004년 ISO에서 표준 개발이 결정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5년에 걸쳐서 소비자, 정부, 기업, NGO 등 6대 이해관계자를 대표하여 다자간의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으로 참여한 90여 개국 이상의 전문가에 의하여 개발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표준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과 원칙을 정하고, 조직의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참여와 발전이라는 7대 핵심 주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며, 제3자를 통한 인증을 하는 경영시스템의 표준은 아니지만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각국의 기술규정, 소비자의 평가기준 및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ISO 26001은 UN총회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목표와 일부 연계되며,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증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생존과 인류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것이 그 목적이다.



## 지식마당

### 2. ISO 26000 구성체계 및 지침

ISO 26000은 조직의 규모나 위치한 장소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조직에 대하여 (1)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개념, 용어의 정의 (2) 사회적 책임의 배경과 동향, 특성, (3)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원칙과 관행, (4) 사회적 책임의 핵심주제와 쟁점, (5) 영향권 내에서 조직의 정책과 관행을 통해 조직 전반에 걸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의 통합, 이행 및 촉진 (6) 이해 관계자 식별과 참여, (7)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의지 표명, 성과 및 의사소통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SO 26000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7대 원칙과 7가지 핵심주제 및 37개 쟁점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대 원칙은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익 존중, 법치 존중, 국제 행동규범 존중, 인권존중이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책임이다. 설명책임은 나와 관계되거나 나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나의 사회적 책임 행동을 진솔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며, 조직 측면에서는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에 설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7가지의 핵심주제는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No	핵심주제	No	목표
1	조직 거버넌스	1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구조
2	인권	1	정당한 배려
		2	인권위험사항
		3	공모회피
		4	고충처리
		5	차별과 취약집단
		6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7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8	직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3	노동관행	1	고용과 고용관계
		2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3	사회적 대화
		4	직장에서의 보건과 안전
		5	인적자원 개발과 훈련
4	환경	1	오염 방지
		2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3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4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No	핵심주제	No	목표
5	공정운영관행	1	부패방지
		2	책임 있는 정치 참여
		3	공정 경쟁
		4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제고
		5	재산권 존중
6	소비자쟁점	1	공정한 마케팅, 사실적이고 공정한 정보 및 공정한 계약 관행
		2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3	지속 가능한 소비
		4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5	소비자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6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7	교육과 인식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1	지역사회 참여
		2	교육과 문화
		3	고용창출 및 기능 개발
		4	기술 개발과 접근성
		5	부와 소득 창출
		6	보건
		7	사회적 투자

### 3. KS A ISO 26000

한국에서도 ISO26000의 이행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지난 2012년 8월 30일 사회적 책임의 한국 표준인 KS A 26000:2012를 제정하였다. 이 표준은 2010년 제 1판으로 발행된 ISO26000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과 대응하는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의 산업표준이다. 이 표준은 지침을 제공할 뿐 인증 목적, 규제 또는 계약상 이용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적합하지도 않다. 단지 사회적책임에 대한 지침을 조직에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조직이 사회적으로 보다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곽채기 등, 공공기관의 ISO 26000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동국대학교, 2013



## Quiz

1. 다음중 ISO 26000:2010에서 정의한 사회적 책임 7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설명 책임
  - ② 적발 책임
  - ③ 법치주의 존중
  - ④ 인권 존중
  
2. 다음 중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②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 ③ 위계적 관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 ④ 수수한 금품에 대한 반환
  
3. 다음 중 KS A ISO 26000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인증 미취득 시 규제
  - ② 계약시 필수 인증 제도로 도입
  - ③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격려
  - ④ 국제 평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기반 마련
  
4. 다음 중 신세계의 희망배달 캠페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문파트너와 함께 운용
  - ②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 ③ 연간 상시기부
  - ④ 기부금 운용

##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① 2015년 UN 총회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SDGs
2. 답 ④ 2017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반부패 적발 활성화’는 논의되지 않았음
3. 답 ② 경제 활성화를 통한 부의 양극화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해당하지 않음
4. 답 ③ 적발 위주의 감사는 현대커머셜의 윤리경영 체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행사

### 1. 농협, '2017 클린RPC 구현 토론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3일 농협세종교육원에서 농협RPC(미국종합처리장) 장장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클린RPC 구현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관계자는 "농협 RPC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사고 방지 목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리경영, 작업안전, 손익개선 등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였으며, 클린 RPC 구현 서약을 통해 △원칙에 입각한 업무 수행 △고품질 쌀 생산과 경영혁신 △쌀 소비촉진 운동에 솔선수범 할 것을 약속했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으로 클린RPC를 구현하고, 사고 제로화 운동을 추진해 농가 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자"며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민의 농협RPC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233>

### 2. [제14회 윤경SM포럼] 신뢰사회 구축 위한 CEO 서약식 열린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대문구 핀란드 타워 지하1층 컨벤션홀에서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기업! -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CEO의 다짐'을 주제로 제14회 윤경CEO 서약식을 개최한다.

윤경SM포럼 주최,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올해 14회 째 개최되는 '2017년 윤경 CEO 서약식'은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종갑 지멘스 회장, 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문국현 한솔섬유 사장,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이 명예대표를 맡고 있다.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펼칠 예정이며 이후 윤경SM 포럼 소개 및 17년도 아젠다 발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에 나타난 '소소한 변화' 스케치, 일반소비자가 선정한 '우리기업에 바라는 5 TO-Do 리스트'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CEO 윤리경영 서약식을 가졌다.

윤경SM포럼을 주관하는 산업정책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름에 부응해 2003년 3월 윤리경영 이해관계자를 주축으로 한국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윤경SM포럼을 발족했다. 현재 70여 개의 법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http://srwire.co.kr/archives/26013>

### 3. 롯데홈쇼핑, 파트너사 초청 '투명 경영' 간담회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롯데홈쇼핑 파트너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5년 11월 진행된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됐다. 롯데홈쇼핑은 투명·청렴경영 자문 기구인 경영투명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파트너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31개 파트너사 관계자들은 파트너사 재고 소진, 방송 및 판매 관련 법 위반 시 책임과 처벌, 샘플 사용 기준, 상품 선정 및 편성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법무와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준법지원부문을 신설했다. 윤리경영평가, 준법경영 캠페인 등을 통해 파트너사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17221&code=11151600&sid1=spe>

##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